

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4억 부동산 줄고 금융자산 늘었다

통계청,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전년도 3.1% 대비 증가폭 둔화 '토지자산' 감소세 지속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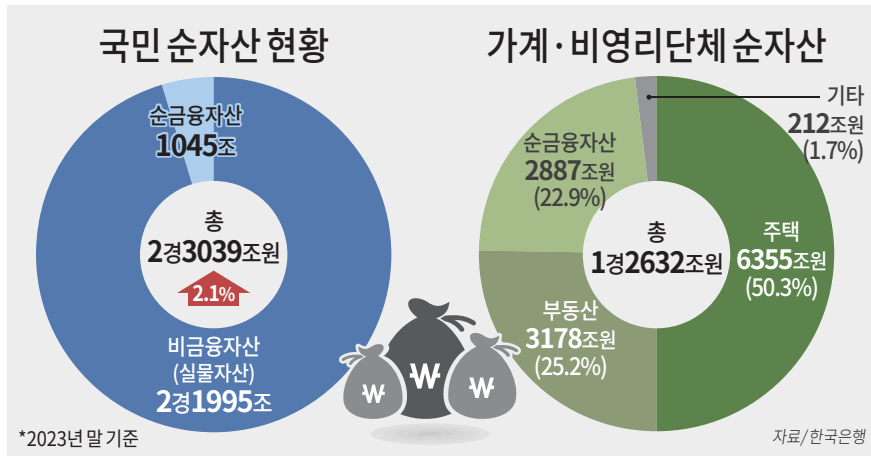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를 의미하는 국민순자산은 2.1% 증가했지만 1년전(3.1%)과 비교해 증가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4427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자산 중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지만 주가 반등으로 금융자산이 늘었다.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3039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2조원(2.1%) 증가했다. 2022년 증가폭(688조원·3.1%)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둔화한 수준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말작성하는 일종의 재무상태표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이저것 쌓은 자산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 이른바 국부의 규모를 계산한다.

국민순자산의 증가폭이 둔화한 이유



는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의 감소세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토지자산은 2022년 1경2132조원에서 2023년 1경2093조원으로 38조원 감소했다.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5%, 전체 국민순자산의 52%를 차지한다. 토지자산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가격 하락이 자산 증가세를 둔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경2632조원으로 1.7% 증가했다. 주택자산(-147조원·-2.3%)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0.4% 줄었지만, 주가 반등으로 금융자산이 4.7% 늘었다.

순자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주택이 50.3%로 가장 많았고, 주택외의 부동산이 25.2%, 현금 및 예금이 19.1%, 보

험 및 연금이 11.5%를 차지했다.

주택과 주택외의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비중은 75.5%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을 포함한 국부가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구당 가계 순자산은 5억7855만원으로 1년전(5억7561만원)과 비교해 0.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서는 가계부분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순자산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1경2632조원)을 추계 가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4427만원으로 1년전(2억4039만원)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식진흥원, 파리올림픽서 한식 체험행사

농식품부, 파리 '코리아하우스'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에서 한식 체험·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18일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농식품부가 한식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지정한 파리 지역 우수 한식당 5개소와 CJ제일제당이 젊은 한식셰프 육성사업인 퀴진케이 영셰프 6인이 함께 참여한다.

제철음식과 발효음식을 주제로 직접 개발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인다. 특히 파리 우수 한식당 순그릴마레, 이도, 종로삼계탕, 맛있다, 삼부자 등 5개소의 대표 음식을 재해석한 박대 타코, 초계탕, 순대 꼬치, 프렌치 잡채, 새우젓 아이올리 편육 등 5가지 메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를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인 코리아하우스 누리집을 통해 해외 우수 한



파리 한식당 순그릴마레의 한정식. /한식진흥원

식당 지정제와 한식 요리방법(레시피)을 안내한다. 아울러 한식 소개 책자와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한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파리 올림픽은 전 세계인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스포츠, 컨벤션 등 국제행사를 통해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과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김영란법' 선물가액 8년만에 상향 논의

권익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선물가액이나 식사비 등의 상한이 현실적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

리여서 사실상 이들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고품제공상한선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 등이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현재까지 고수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차상근 기자

한국전력공사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2018년부터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대응 역량·대비 훈련 등 우수

한국전력공사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29개 중앙부처, 66개 공공기관과 243개 지자체 등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를 하지 않았던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 사례다.

평가에서 한전은 △기관장·부기관장·실무자 재난대응 역량 △재난대비 훈련 △업무연속성 유지 노력 △실제 재난 대비·대응 추진 정책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방대한 규모의 설비 운영에 따른 재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안호 지속 가능한 재난대응체계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래 먹거리 이차전지 개발 올해부터 4년간 468억 투입

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 재사용 중요성·안전관리 방안 논의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을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468억원을 투입해 관련 연구과제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한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이차전지)'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12개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는 리튬, 코발트 등 희유금속 함유량이 많아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온실가스 등 환경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68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3개 연구과제)'을 착수한다.

3개 연구과제는 △배터리 순환형 설계 △다중 이차전지 해체·분리 △환경부하 저감형 재활용 공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연구과제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향상하고, 환경부하 등 산업계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업계와 연구기관에서 '재활용-제조 순환고리(에코프로)', '사용후 배터리 순환 경제 정책동향 및 중점과제(KEI)' 등 배터리 순환경제에 대한 성공 사례, 해외 정책·산업 동향에 대한 기초강연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토의를 통해 세계 선도형 연구개발 추진 현황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전국한우협회, 홍콩서 팝업스토어 오픈

썸머 비트 페스트 2024서 홍보

전국한우협회가 홍콩 젊음의 거리 환콰이펑에서 열린 '썸머 비트 페스트(Summer Beat Fest) 2024'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고 한우홍보에 나섰다.

협회는 한우 수입 바이어사인 브라이트존과 홍콩 한우 우수판매점 갈비타운과 협업해 한우 채끝 큐브 스테이크, 한우 탕수육, 한우 버거, 한우 불고기 샌드위치, 한우 잡채 등의 한우 간편식 메뉴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한우 홍보부스에서는 한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해 한우 이력시스템과 한우농가의 정성이 깃들여 맛과 안정성이 우수한 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홍콩 수출사업은 한우농가 거출금인



홍콩 환콰이펑 Summer Beat Fest 2024의 한우부스 앞에서 한우버거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있는 외국인 모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전국한우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에 문화를 입히다'라는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중에 홍콩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 4개국에 지난해 동기 대비 4.3%증가한 22.6톤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차상근 기자